20세기 영화 특수 분장사와 캐릭터 특수분장 연구

장미숙* · 양숙희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박사졸업* ·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본고는 영화 특수 분장에 관한 개념적인 정의 및 기술적 범주, 발전 배경에 관한 이론적인 연구를 토대로, 특수 분장사의 정체성과 20세기의 대표적인 특수 분장사들의 업적을 고찰함과 동시에 공포영화와 SF(Science Fiction)영화를 중심으로 캐릭터의 유형에 따른 특수 분장 기법을 실증적으로 연구하고 두 장르가 표출하는 사회·문화적 의미체계와 미적 특성을 상호 비교 분석하는 연구이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 분장은 배우의 얼굴과 신체에 인위적인 변형 또는 보강을 통하여 급격한 외모 변화를 주기 위한 것으로, 캐릭터 분장(Character Make-up)과 애니메트로닉 분장(Animatronic Make-up), 디지털 분장(Digital Make-up)인 특수 효과 분장이 포함되며 특수 분장의 발전 배경으로는 제도적 장치로서 장르 시스템(Genre System), 스튜디오시스템(Studio System), 기술적 장치로서 하이테크놀로지(High Technology)가 상정되었다.

둘째, 영화 캐릭터 창조의 주체인 특수 분장사의 정체성은 신체 예술가, 상업 예술가, 영화인의 측면에서 분석되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특수 분장사로는 1930~40년대 최초로 호러 분장에 특수 분장을 시도하여 특수 분장 1세대로 평가되는 잭 피어스(Jack Pierce), 1950~70년대 특수 분장의 공식화·현대화·개방화에 기여한 노역분장 전문 딕 스미스(Dick Smith), 1980년대 스플래터 분장(Splatter Make-up)으로 특수 분장의 리얼리즘을 이룬 톰 사비니(Tom Savini), 1980~2000년대는 공포영화에 국한되었던 특수 분장의 장르를 SF, 판타지, 코미디, 액션, 스릴러 영화에까지 확장한 유인원 분장 전문 릭 베이커(Rick Baker)와 특수 분장사 겸 특수 효과 감독으로서 기계와 디지털 분장을 이용해 특수 분장 캐릭터의 초현실화를 실현한 스탠 윈스턴(Stan Winston)이 선정되었다.

셋째, 공포영화와 SF영화 각 장르별 대표적인 캐릭터 유형, 즉 공포영화는 흡혈귀(Vampire), 늑대인간(Werewolf), 좀비(Zombie), 사이코 살인마(Psycho-killer)를, SF영화는 외계생명체(Extra-terrestrial), 돌연변이(Mutant), 로봇(Robot)·사이보그(Cyborg)를 상정하고 특수 분장 디자인과 기법, 미적 특성을 상호 비교 분석한 결과 주 특성으로서 가장성, 타자성, 초현실성의 동질적 특성과 각각의 하위 특성으로서 변형성 대 확장성, 악마성 대 괴물성, 원시성 대 미래성의 이질적 특성이 도출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세기 공포영화와 SF영화 모두에서 특수 분장은 시각적으로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매체로 작용하였으며, 인간의 상상력을 표현하는 수단이자 사회적 금기(악마, 살인마, 외계인, 괴물, 기계)를 실천하는 영화적 재현장치로서, 수공업과 기계공업, 디지털 산업을 통해 트릭을 창조하고 새로운 인체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영화의 시각적 스타일 창조에 기여하는 미적 기호로서 뿐만 아니라 영화 속의 세계를 구성하는 주된 상징적 기호로서 그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